

순천시 '그린카본 정원'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

시 전역 탄소흡수원 정원 탐바꿈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도 박차
경유차 폐차·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자립도시 시책도 병행



순천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순천시 직원들이 지난 7일 순천역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곳곳으로 연결해 시 전역을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 정원'으로 탐바꿈한다.

순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에 달하는 96만t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2050년까지 배출량 '0'인 '넷제로'를 달성하면 온실가스를 241만t까지 감축할 수 있다.

순천시의 탄소흡수원은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카본'과 순천만갯벌의 '블루카본'으로 나뉜다. 도심 곳곳을 녹지화하고 갯벌 생태계를 복원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 사이언스지 연구자료에 의하면 습지는 숲의 5배, 바다의 500배 탄소저장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다. 순천만습지는 연간 약 6900t의 탄소를 흡수한다. 시는 지난해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와룡 산지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완충 지역에는 생태체험장과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소 등을 설치해 기존

순천만습지, 동천하구 습지와 연계한 3대 습지(연안-하천-산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습지보호지역 주변 마을과 연계한 이른바 '생물권보전지역 순천 유산기행' (가칭)을 마련해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폭넓은 생태계 관광을 제공하고자 한다.

순천시는 자연기반 해법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방안과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

착 지원,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충전 시설 구축 등을 진행한다.

순천시는 탄소 배출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7355대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이로써 순천시 노후 경유차의 52.5% 상당이 폐차됐다. 올해는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연내 무공해차를 960대까지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를 가곡동에 연말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과 우수 녹색 아파트 선정, 탄소포인트제

택 제공 등도 진행한다. 탄소를 아낄수록 혜택을 얻는 탄소포인트제에는 2011년부터 12년간 2만 6833세대가 참여해 온실가스 1만3920t을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역 곳곳에서 추진한다.

시는 철도방음벽을 태양광발전설비로 교체하고 대용량 태양광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배관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와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보조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LED 전등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억9800만원 상당 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소형 LPG 저장 탱크를 마을 단위로 보급해 20% 연료비 절감효과를 냈다.

산업 현장에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 비율을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한국형(K)-RE100' 운동에 대한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 숲, 습지 등 자연기반 해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보여줄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진남관 중수 상량식 내년까지 대대적 보수정비



내년 말까지 대대적인 손질을 하는 여수 '국보 진남관'에서 지난 15일 중수 상량식이 열렸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국보 진남관 중수 상량식을 열어 고유제를 병행하고 상량문을 마루대에 봉안했다. <사진>

진남관 보수를 축원하고 안전한 준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상량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시의회 의장,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립국악단의 무대를 시작한 뒤 김세규 여수향교 전교 주재로 의식을 치렀다.

상량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 신병은 시인이 작성하고, 박정명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가 휘호했다.

국보 진남관(鎭南館)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경상, 전라, 충청 삼도수군절도사로서 수군을 지휘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진남관에 가설집을 설치하며 보수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문화재청 기술도단의 자문을 받아 초석, 기둥, 목부재를 살피고 발굴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지붕 기와와 단청 마무리 공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는 새로 단장한 진남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진남관 보수현장 공개 관람은 다음 달부터 재개한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진행한다.

첫 관람일은 4월8일로, 이달 25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어르신 밥상 배달로' 발대식 갖고 서비스 시작

곡성군이 최근 '어르신 행복안심밥상 배달로' 발대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행복밥상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매일 1회 발반찬을 지원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그동안 곡성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의 50여명의 회원들이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발반찬을 조리하고, 군청 주민복지과와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발반찬을 배달해 왔다.

이번 발대식과 함께 국제로터리 3610지구 곡성군 5개 로터리클럽에서 발반찬 배달을 시작한다.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배달로' 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요트 전지훈련지 각광 보성서 5월 전국대회

해변종합관광시설 마리아(요트 정박지)를 갖춘 보성군이 '요트 대회'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랑면 보성비봉마리아에서 국가대표 요트 후보팀이 전지훈련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요트협회가 주관한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 34명이 참가했다.

1인승과 2인승을 포함한 7개 종목으로 나눠 훈련이 진행됐다.

주말 훈련에서는 인근 지역 요트팀과 전력 강화 훈련을 하고, 선수 평가·영양이 주를 이루는 스토브리그도 2회 병행했다.

국가대표 요트 후보팀의 전지훈련지로 낙점받은 보성에서는 오는 5월 5~6일 '2023 한국요트미스트 전국요트대회'도 열린다.

대한요트협회 선수 100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요트미스트, 토포즈 2개 종목에서 초등·중등·일반 12개 부로 나눠 기량을 겨룬다.

요트대회는 '제11회 보성세계자연스포트' 기간에 열려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 해변은 온화한 기후를 지닌 덕분에 요트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내년도 국비 건의 추진상황 보고회

고흥군이 지난 13일 '핵심사업 및 2024년 신규사업 국비 건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핵심사업 89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군청 중앙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공영민 군수와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고흥군이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은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과 사업비 9175억원 규모 고흥 도양-보성 벌교 철도 건설사업 등이 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628억원), 금산면 오천항 건설(500억원) 등 국비 건의 안건도 회의에 부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고흥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 박자 빠르게 대응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 화엄사 흥매화 '화엄매' 활짝

15일 오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자락에 있는 천년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 흥매화 '화엄매'가 활짝 피었다. 장성 백양사 고불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 강릉 오죽헌 울곡매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매화에 꼽히는 화엄매는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